

Formosa, 에틸렌 120만톤 크래커 건설!

Mailiao No.3 프로필렌 60만톤에 부타디엔 17만톤 ... 2006년 완공계획

Formosa Petrochemical은 타이완 Mailiao의 Naphtha 크래커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Formosa는 2006년 하반기까지 총 250억NT달러(7246억달러)를 투자해 에틸렌(Ethylene) 120만톤, 프로필렌(Propylene) 60만톤, 부타디엔(Butadiene) 17만톤을 건설할 계획이다.

Formosa는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ABB Lummus Global이 엔지니어링을 담당한다.

Formosa는 Mailiao에 이미 2개의 에틸렌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이 총 170만톤에 달하고 있다.

Mailiao 콤플렉스의 다운스트림 생산기업들은 Formosa의 3차 크래커 건설여부에 주목하고 있는데, 앞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면 추가 원료공급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운스트림 기업에는 Formosa Chemicals & FCFC(Fibres Corp.), Formosa Plastics 및 Nan Ya Plastics이 있다.

Nan Ya는 3차 EG(Ethylene Glycol) 플랜트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4차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며, FCFC는 3차 Styrene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Formosa Plastics은 VCM(Vinyl Chloride Monomer) 생산능력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Formosa는 주로 현금투자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ormosa는 2003년 매출이 2200억뉴타이완달러로 20% 증가함에 따라 순이익이 1780억뉴타이완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FPC 모회사들은 2004년 11월경에 각각의 자회사들을 Taipei Stock Exchange에 상장시킬 계획이다.

한편, Formosa는 아직 중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이완 정부는 타이완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9/08>